

해남군 '농촌 서비스 협약' 사업 선정

주민 주도 생활서비스 계획·공급
중앙·지방정부 행정·재정적 지원
내년 계획수립·모델 구축 등 시행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농촌·교육·생활편의·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를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계획하면 중앙·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주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읍면 단위 사회서비스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체 지원 조직, 주민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높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고장 등 6개 시군, 전남에서는 해남과 영광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1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의 컨설팅과 함께 서비스 협약 체결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지원을



해남군이 농촌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산면 주민자치회 자원순환 그린반장. 〈해남군 제공〉

받는다. 주민공동학습회, 워크숍, 공론장 운영, 서비스 제안서 작성 등 주민 참여 중심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주민 수요조사, 서비스 공급계획 수립, 협약 체결, 모델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협약 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 모델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해남군 주민 공동체의 역량과 자치 기반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며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농촌·생활·문화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이 계절노동자 대상으로 진행한 입국 초기 교육.

무안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운영

4개국과 MOU… 1000명→2000명

무안군이 심각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무안군은 지난 2022년부터 필리핀 실랑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467명이었던 계절근로자는 올해 958명으로 늘었다.

군은 농어촌의 일손을 대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내년엔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베트남,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 4개국과 추가 MOU를 진행한 무안군은 가족

초청 대상도 관외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했다. 농어가의 급증하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군은 기존 필리핀과 라오스에 더해 MOU를 체결한 베트남,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의 계절근로자를 내년 상반기부터 농어촌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광 무안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 농촌이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다"라며 "내년에는 농어가 고용 방식뿐 아니라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로도 확대 운영해 농어촌에 부족한 일손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광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자

26일까지 신청 접수

영광군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활기찬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신체 능력, 경험, 관심 분야에 맞춰 노인 공익활동, 역량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유형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 기준은 노인 공익활동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이며, 역량활용형·공동체 사업단은 만 65세 이상의 직무 수행 적합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을 지참해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스포츠산업단, 산림공원과 또는民間 수행기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여가' 사이트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 참여 확대, 건강 증진, 자존감 회복 등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참여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서울 성수동에 뜨는 '진도 곱창김'

12~14일 성수 '디 에이' 서
MZ 소비자 겨냥 팝업스토어

진도군이 '진도 곰창김'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성수동에서 소비자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행사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디 에이(연무장길 99)'에서 개최되며 국내 최대 곰창김 생산지인 진도군이 젊은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024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1020세대·MZ 세대를 타깃으로 체험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테토김, 에건밥'을 주제로 자기관리·건강·취향과 같은 MZ 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 현장에서는 김 바벨 들기와 사이클에

너지 충전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김'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강조한다.

또 원조 체험 존에서는 김의 질감·결·두께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꾸며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체감할 수 있게 했다.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제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며, 시식과 브랜드 굿즈 프로그램을 통해 진도 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진도 곰창김의 우수성과 매력을 현대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소비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홍보 전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홍보를 넘어 관광 자원화와 지역 산업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최우수 지자체

완도군이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완도군은 지난 2024년 공모에 선정돼 202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확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성과이다. 특히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안 생태, 자연경관, 지역 문화 지원을 직접 활용하고 기록하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가치를 탐구하는 경험을 쌓게 했다.

또 마을탐방, 버스킹 공연, 가족 영화관 등 완도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도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소년이 성장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가치를 체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이번 사업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hng@



진하며, 도서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소년이 성장하며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의 가치를 체험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년에 사업을 확대 추-

목포 동본원사, 역사·문화전시관으로 재탄생

재정비 기념 '목포 100년...' 특별전

목포시가 방치된 동본원사 지하공간을 역사·문화 전시공간으로 재정비했다.

1930년대 초 일본 불교 사찰로 조성된 동본원사 지하공간은 해방 이후 정광사의 관리를 거쳐 1957년부터 교회로 활용됐다. 2010년 오거리문화센터 개관 이후에는 창고로 사용되며 활용도가 낮았다.

시는 올해 8월부터 지하층 천장과 기둥 보수를

포함한 공간 재생사업에 나섰다.

내부 벽체에 사용된 목포 고유 석재 '목포석(옹화암)'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전시 콘텐츠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는 재정비를 기념해 '목포 100년의 걸음'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목포의 100년 변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